

“제2공항 의견 수렴 주민투표도 포함해 논의”

위성곤 지사, 어제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언급
“내년 상반기까지 제2공항 문제 마무리” 재확인

위성곤 제주지사가 제주 제2공항 사업 도민 의견 수렴방식으로 다시 주민투표를 언급했다.

위 지사는 16일 제주특별자치도 청 기자실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도민 의견수렴 방식과 관련해 주민투표도 논의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는 뜻을 밝혔다.

위 지사는 먼저 제2공항 갈등조정협의회와 관련 “객관적으로 이해 당사자가 참여하고 함께 논의하는 절차를 정리하자는 것”이라며 “그 절차에 따라 나온 결론이 찬성일지 반대일지, 다른 방안일지는 모르겠지만 방안이 제시되면 제주도는 이를 수용하고 정책 건의를 하겠다”고 말했다.

위 지사는 이어 “주민투표가 될지 아닐지는 의견이 다른 만큼 그것도 포함해서 함께 논의를 계속해 나가겠다”고 말해 제2공항의 도정

질문에 이어 다시 주민투표를 제2공항 사업 의견 수렴방식의 하나로 거론하면서 주민투표를 반대해 온 제2공항 사업 찬성측의 반발이 예상된다.

위 지사는 당선인 시절과 달리 취임 후 제2공항 사업에 대해 찬반 입장을 밝히지 않고 환경영향평가 초안이 나오면 갈등조정기구를 통해 도민의견을 수렴해 내년 상반기까지 결론을 내겠다고 밝히면서 제2공항 의견수렴 방식으로 주민투표 등을 지속적으로 언급하고 있다.

위 지사는 “지난 11년간 갈등해



위성곤 제주지사가 16일 도청 기자실에서 출입기자단과 간담회를 갖고 있다. 강희만기자

온 만큼 이제 갈등의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는 것이 제가 만나는 도민들의 대다수 의견”이라며 이달 초 밝힌 제2공항의 동의를 앞서 도민 의견수렴을 마치고 내년 상반기까지 제2공항 문제를 마무리한다는 목표도 재확인했다.

다만 도민 의견 수렴 방식으로 주민투표가 채택될 경우 그 결과와 제2공항의 환경영향평가서 등

의 절차를 어떻게 연계할 것인지는 향후 논의할 사안으로 남아 있다.

제2공항의 관계자는 “제주특별법을 통해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권한을 이양 받아 도의회가 도민의 의견을 들어 동의 여부를 판단하도록 하고 있는 취지를 무력화한다는 논란이 제기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위영성기자 yswi1968@ihalla.com



지난달 제주도농업기술원 김정근 보유자의 안내로 참가자들이 구역리에 남아 있는 굴(가마)을 탐방하고 있다. 제주농업 기자

전통 옹기 핵심 콘텐츠로 마을 자원 이해



<7> 제주옹점(중)

도 기념물 노랑굴·검은굴
마을 보유 문화유산 탐방
그릇 체험·지도 제작까지

그릇을 탄생시켰다.

따라서 제주옹점 ‘옹기마을 공간 프로젝트’의 핵심 콘텐츠는 제주 옹기일 수밖에 없다. 지난달에는 제주도 무형유산으로 지정된 제주도농업기술원 김정근 보유자(굴대장)의 안내로 섯굴, 폭낭굴, 검은굴 등 ‘옛 옹기터’ 탐방을 벌였다. ‘옛 옹기터’로 향하기 전 옹기 제작 체험으로 소금 단지를 빚었던 참가자들에게 옛적 그릇 하나가 세상 밖으로 나오기까지 얼마나 지난한 과정을 거쳤는지 짐작할 수 있는 시간이었다. 소금 단지는 당초 성형 작업으로 끝낼 계획이었지만 김정근 굴대장의 지원으로 오는 11월 프로젝트를 마무리할 무렵에는 3박 4일 불을 지피 전통 가마에서 구워 낸 그릇을 각자 가져갈 수 있게 됐다.

참가자들은 제주 옹기마을의 습지에 담긴 ‘굴’을 둘러본 후 지역경관, 자원 정보 등을 공유하는 그림 지도를 공동으로 제작했다. 구역리에서 썼던 약 10기의 ‘굴’ 위치, 4·3성터, 옛 학교 자리 등을 표시한 ‘옹기마을 공동체 지도’다.

제주 정착 전 대정읍 영어교육도

시를 오가며 생활하다 5년 전 제주

시 환경면에 등지를 틀었다는 최호

숙 씨는 “유약을 바르지 않는 제주

전통 옹기에 관심이 많아서 프로그

램을 신청했다”며 “직접 손으로

소금 단지를 만드는 기쁨이 컸다”

고 말했다. 이어 “프로그램에 함께

하는 지역 주민들과 대화하며 자연

스럽게 제주 방언도 익힐 수 있어

서 더 즐겁게 참여하고 있다”고 덧

붙였다. 전선희기자 sunny@ihalla.com

<제작 지원=제주특별자치도청>



남조로변 사려니숲길 입구 조형물 새단장

서귀포시 목재 안내간판 교체

제주를 대표하는 명품 숲길인 사려니숲길의 안내 조형물이 새롭게 세워졌다.

>>사진

서귀포시는 탐방객에게 쾌적한 탐방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사려니숲길의 노후 안내 조형물을 새롭게 정비했다고 16일 밝혔다. 남조로 입구 진입로에 설치됐던 노후 목재

안내 조형물 2개를 전면 교체하고, 간판 하부에 탐방객이 쉬어갈 수 있는 작은 쉼터를 조성했다.

시에 따르면 기존 조형물은 장기간 야외에 노출되면서 목재가 부식되고 글씨가 퇴색되는 등 시설물이 노후화돼 안내 기능과 경관 측면에서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이에 시는 사업비 700만원을 투입해 지난 8월 말부터 9월 초까지 정비

공사를 추진했다.

새롭게 설치된 안내 조형물은 기존과 동일하게 친환경 목재를 활용해 사려니숲길의 자연 경관과 조화를 이루도록 했다.

사려니숲길은 연간 약 100만명이 찾는 제주를 대표하는 산림관광지로서, 이번 시설물 정비를 통해 탐방객 편의를 높이는 한편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쾌적한 숲길 경관 조성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백금탁기자 haru@ihalla.com

용흥·도순마을·동일리·사계리

서귀포시, 탄소중립 선도마을 신규 4개소 추가

서귀포시가 2023년 수망리와 색달마을에 이어 매년 마을 2곳을 탄소중립 실천 선도마을로 지정하는데 이어 올해는 4개 마을로 대상지를 확장했다.

16일 시에 따르면 서귀포지역의

탄소중립 실천 선도마을(탄소중립이끄미)은 연도별로 2023년 수망리(16명)·색달마을(17명), 2024년 하례리(18명)·동흥2동(15명), 2025년 서흥동(17명)·마라리(20) 등 총 6개 마을(103명)이다. 여기에 올해

용흥 마을(17명)·도순 마을(21명)·동일리(23명)·사계리(17명) 등 모두 4개 마을(78명)이 새롭게 지정됐다. 이에 시는 17~18일 이들 신규 지정 마을에서 ‘탄소중립 실천 선도마을 선포식’을 갖는다. 선포식은 17일 사계리와 동일리, 18일에는 용흥마을과 도순마을 순으로 진행된다.

이 사업은 최근 심화되고 있는

기후위기에 적극 대응해 개인 차원에 머물렀던 탄소중립 생활실천의 지역사회 확대를 위해 추진되고 있다. 시는 올해 각 마을 탄소중립 생활실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10개 마을이 참여하는 탄소중립 실천 선도마을 협의체를 구성한다. 또한 연말 활동 평가보고회를 개최하는 등 지속 가능한 탄소중립 실천 홍보활동을 추진할 계획이다. 백금탁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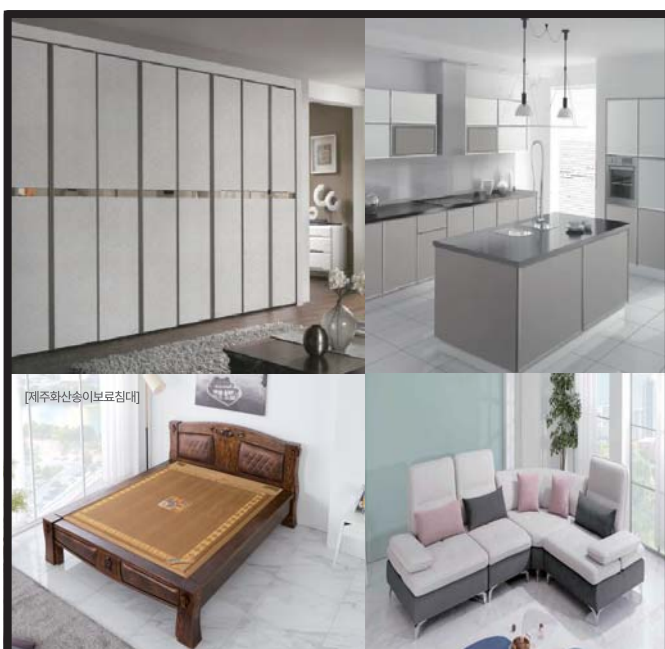
머무는 시간이
행복해지는 공간,
당신의 이야기로 채우다.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 시공!
믿을 수 있는 인테리어, A/S 보장

동서인테리어

건축 / 실내 토발 인테리어 / 욕실 / 거실 / 상가 등

시공문의 064) 758-0015



일상이 새로워지는
오늘을 담은 가구

우수한 제품과 합리적인 가격! A/S보장
신구간 맞이 좋은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동서가구

싱크대 제작 / 불박이장 / 침대 / 소파 / 가구 일체

구입문의 064)758-0065

JM 그룹 제이엠신용정보

빌려주고 못받은돈, 외상대금 등을
돌려받는 일은 제이엠에 맡겨주세요!!

‘한국씨티은행’ 자회사인 ‘씨티크레딧서비스’의 새이름

- 업계 최상 신용조회, 부동산조회 서비스
- 경력이 풍부한 추심직원의 신속한 회수
- 전국 40개 지점망을 연계한 최고의 회수율
- 2022년 신용정보 소비자 만족부문 대상 수상

대상
채권

상사채권 : 물품대금, 공사대금, 용역대금, 외상대금, 투자금 등
민사채권 : 판결문, 공정증서 등 받고 미해결된 개인간의 대여금
금융채권 : 금융기관 여신 및 카드대금 등
채권매입상담 : 금융채권 매도 상담(매입제휴처 연계)

제이엠신용정보 제주지사

무료상담 ☎ 064)702-0500

* 직원모집 : 영업전문직, 추심전문직을 상시 모집합니다.

